

개막 축하사

제1회 “동아시아 지식 공간의 형성” 국제학술대회 개회사 및 환영사

존경하는 내빈과 국내외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를 대표하여 제1회 “동아시아 지식 공간의 형성” 국제학술대회의 개최와 함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자(漢字)를 공유해 온 동아시아 문명권의 긴 호흡 속에서, 전통과 근대가 만나는 접점의 지식과 문화의 흐름을 새롭게 성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의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와 중국 양주대학 문화전승및혁신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하였으며, ‘동아시아 지식 공간의 형성’이라는 대주제를 통해 국가 간 상호작용과 장기적 지식 네트워크의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귀한 분들을 소개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님, 주광주중국총영사관 고경기 총영사님, 원광대학교당 양재호 교감교무님, 그리고 양주대학 문화전승및혁신연구원 관원립 원장님께서 축사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대회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곳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사전 등록과 개막식, 분과발표, 폐막식 및 문화체험, 그리고 국제 학자교류 합작 업무 협의회로 이어지는 촘촘한 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10월 19일에는 양주대학 및 태주학원과의 협의회가 마련되어 학술 네트워크의 제도적 연계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개막 직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이영호 원장님께서 ‘근대 한국 유교지식인의 주리철학과 저항정신—심산의 행동유학의 연원에 대한 재고찰’이라는 기조강연으로 학문적 좌표를 제시해 주십니다. 전통의 관념 체계가 근대의 사회적 저항과 어떻게 접속되었는지를 탐구하는 이 강연은, 이번 대회의 문제의식과 정합적으로 호응할 것입니다.

분과 구성 역시 대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 * 제1분과는 ‘동아시아 한자문명의 형성과 발전’과 ‘지식 유통·출판문명’을,
- * 제2분과는 ‘동아시아 신흥 종교와 사상’ 및 ‘근세 민속문화의 변천’을,
- * 제3분과는 ‘동아시아 고전학의 해석과 수용’을 통해 전통 지식체계의 지속과 변형을 다각도로 조망합니다.

이 학술대회가 추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텍스트와 사상, 제도와 기술, 인물과 네트워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지식의 이동과 재배치’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동아시아가 공유해 온 문자·경전의 기반 위에서, 번역·주석·간행·교육·의례·신흥사상 등 다양한 층위를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전통적 지식질서가 근대적 전환 속에서 보인 연속성과 단절, 그리고 새로운 결합의 가능성을 함께 토론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동아시아 지식사의 장기 지속성과 변동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대회의 기획 의도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본 대회는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지역문화의 연결을 중시합니다. 학술발표와 더불어 원광대학교 박물관 및 국립익산박물관 참관,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의 폐막공연 관람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화적 맥락을 연구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학술과 문화가 분리되지 않는 ‘살아 있는 지식 공간’을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회 준비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동주관 기관인 양주대학 문화전승및혁신연구원, 후원해 주신 한국연구재단과 원광대학교, 그리고 발표자·토론자·좌장·자원봉사자·행정 담당자 여러분의 수고가 오늘의 자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끝으로, 축사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오늘의 만남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식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공동의 약속입니다.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는 양주대학·태주학원 등 파트너들과 함께, 고전학의 현대적 가치와 디지털 전환의 가능성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내일의 학문은 국경을 넘나드는 협업과 열린 공유 위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그 첫 단을 놓는 역사적 출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연구가 오늘의 대화를 깊고 넓게 만들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1회 동아시아 지식 공간의 형성”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각자의 연구 여정 위에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 소장 정경훈